

# “이러다가 단일화 안될 수도...”

# 정치쇄신 제시 못한 文 위기감·비판론 커진다

### 문-안 수주일제 평행선 논의만 지지율 고착화 3자 대결 전망에 ‘노-정’처럼 극적인 타결 예측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제부터 단일화 무브먼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후보단일화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때가 되면 만큼 단일화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아무래도 안 후보로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안 후보도 이미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선거

대책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빨리 기록권 내려놓고, 특하면 싸우는 대립적인 정치구조도 빨리 해소해야 하고 특히 낮은 정치 행태를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야 한다”며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이번에 정말 ‘안철수 정부’를 탄생시켜서 기성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을 정말 두렵게 하면서 확실하게 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바로 단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만큼 변화와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다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도 후보등록 마감일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선거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만약 대형 정치·정책 이슈가 터지거나 어느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단일화 없이 3자 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크고 시간도 충분하다는 관측이 많다. 당분간 각자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11월부터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2년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 후보가 11월 1일 후보 등록에 의한 단일화를 제안했고, 이를 후에 노 후보가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다시 제의했다.

이어 11월17일 후보 단일화 세부 절차가 타결됐지만, 이후 며칠이 지난 11월22일 단일화 방안이 수정 타결됐다. 그리고 11월24일 여론조사를 실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된 날이 11월25일,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이었다.

/\*박지명기자 jkpark@kwangju.co.kr

민중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정치쇄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감과 함께 비판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조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 공동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문 후보 측은 조만간 단독으로 ‘새로운정치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원장 인선에 예를 먹으면서 문 후보의 정치쇄신 구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때문에 17일 선대위 회의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안에서 정치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은 민주당이 바뀔 게 없다고 한다”며 “변화하라는 국민의 목소

리를 외면하고 혁신의 몸부림 없이는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의 편에서 무엇을 제안할지 국민에게 묻고 결의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정권·정치·시대교체를 위한 ‘전당적 혁신운동’을 제안했다.

인적쇄신론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문 후보 캠프의 의사결정이 일부 친노 핵심 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주류 그룹의 판단이 거저에 깔려있다.

선대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당내 패권주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찬 대표가 백의종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시면 좋

겠다”고 말했다.

비주류 그룹의 황주홍 의원도 이날 ‘조선일지’에서 문 후보가 당내 인적쇄신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쇠신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가 주축을 이룬 ‘시민캠프’가 ‘대국민정치혁신 동행’ 캠페인에 돌입, 18일부터 3일간 온·오프라인에서 정치혁신 릴레이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캠프는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져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양한 쇠신안을 수렴,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내주에는 가칭 ‘정치혁신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쇠신 관련 제안을 전달받는 전국 순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명기자 jkpark@kwangju.co.kr

## 뒤는 조선 황주홍 단일화 놓고 당 지도부 또 비난 이해찬 겨냥 “무소속 불가론은 文에 악영향” 安 입당론엔 “역지사지 없는 짜질한 민주당”

민주당 황주홍 의원의 ‘조선일지’가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조선일지는 황 의원이 4·11 총선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주로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일각에선 ‘조선 의원이 튀어보기 위해 하는 쇼’라고 낱말이 보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선 ‘제 일을 하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는 17일 조선일지를 통해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선대위원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연발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작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민주당, 어찌 좀 짜질하다”는 글로 일기를 시작한 뒤 같은

당 우원식의 원이 이해찬 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인용, “12월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보자 확실하게 위해 당 지도부에 대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야 한다고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일반 여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난 9일 민주당 관계자가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되며 문 후보에게 이로운 것 같 은가”라고 반문한 뒤 “안철수 후보를 향해 날린 화살은 그대로 문

후보를 향한 화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가. 선대위 주변 일부 충성분자들, 참 짜질짜질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옛그저는 문 후보 자신이 안 후보에게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기성천외한 제안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만약 안 후보 측이 문 후보에게 ‘지금 당장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서 함께 정치혁신의 길을 걸어보자’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며 역지사지 신뢰의 제1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 후보를 ‘소멸해 가는 태풍’이라고 비유했는데, 안 후보가 소멸해버리면 우리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함께 소멸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썼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논란 관련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7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입장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이틀간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논란으로 재점화된 이번 사안에 대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며 “저나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가 기존의 ‘불개입’ 입장을 바꿔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위한 양측의 비밀회동 파문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 박근혜·안철수 DJ행사 나란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7일 김대중기념사 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서 나란히 축사를 했다. 박 후보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겸 행사장을 찾았으며, 축사에서 영·호남 간 지역

대립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 전 대통령을 방문했던 일화를 회고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동서화합이 중요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못한 것을 박 대표가 하라. 미안하 축사를 했다. 박 후보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겸 행사장을 찾았으며, 축사에서 영·호남 간 지역

안 후보는 축사에서 “1997년 (대선에서) 국민이 김 전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변화였다”며 “2012년, 1997년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재현될 바란다”고 말하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김 전 대통령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의 연결고리를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만나 “안녕하십니까”라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다. 이날 박 후보와 안 후보는 행사장의 좌석에 나란히 앉았으며 행사 도중 중간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투자 하실분  
▶NPL /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 / 임차활동비 등 550만원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산도곡(운천모뎀) 대3234㎡, 24280㎡ 감정가 42억4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2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생촌동(원룸) 대294㎡, 24494㎡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산도곡(무민텔) 대1904㎡, 262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629㎡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4억4천
---	--	--	---	--	---	--

유통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4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정) ☞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1600만 ▷매매가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이포텍스)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 (예식장)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리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정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원동	대3238, 23090	72억	25억	3층나이트
화정동	대1094, 24489	41억5천	17억	8층예식장
대촌동	대230, 21716	7942천	5922천	5층근린
두암동	대570, 21256	12949천	5922천	4층원룸
수원동	대651, 212386	13949천	5977천	4층상가
신안동	대4706, 211123	18922천	12971천	2층상가
목포동	대1786, 21408	4988천	2911천	단층수원
보성동	대685, 21763	7922천	1988천	2층상가
전북김제	대8076, 25004	25억	10억	2층물류창고
전주덕진	대665, 23988	11942천	5988천	2층나이트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통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